

한국동서발전 제주 탐나라공화국에 재생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동서발전, 문화를 융합한 재생에너지 브랜드 띄운다(제주도 MOU)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문화와 결합한 복합테마공원이 제주도 들어선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11월 21일 제주에서 탐나라상상그룹과 '제주하늘빛 문화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탐나라상상그룹이 조성 중인 테마공원인 탐나라공화국을 재생에너지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탐나라공화국 생태문화공원에 태양과 바람, 물을 이용한 체험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와 홍보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공원 내 건물옥상과 주차장 및 스토리투어 관광코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상상그룹은 태양광 설비 유휴공간에 예술과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재생에너지 브랜드 '제주하늘빛'도 만들었다.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조금 더 국민의 생활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흥미로운 체험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와 발전의 융합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